



장학생 강화도 하계수련회 30명 참가



강화도 장흥리 앞 갯벌에서 축구경기가 끝난 후 장학생 '선수들' 이 한데 모였다.

방일영장학생 하계 수련회가 7월 2일부터 3일까지 강화도에서 열렸다. 수련회는 매년 6월 마지막 주말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사법시험 날짜와 겹쳐 1주일 뒤에 열리게 됐다.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야외행사 중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별 지장없이 마칠 수 있었다. 행사는 첫날 오후 강화도 길상면 장흥리 체험농장에서 승

마와 활쏘기, 갯벌체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밤에는 민박 집에서 각종 게임으로 친목을 다졌다. 둘째 날은 전등사와 광성보, 한옥 성당을 둘러본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수련회에는 근래 들어 가장 많은 3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관련기사 15면>

상반기 서중포럼 2회 개최

서중회는 상반기 중 서중포럼을 2회 개최했다. 1차 서중포럼은 4월 28일(수) 조선경제 우병현 이사(서중회 11기)가 '미디어의 미래' 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2차 서중포럼은 6월 23일(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최성환 상무(4기·서중회 회장)가 '저금리;고령화시대의 재테크 전략'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매회 15~20명 정도의 서중회원들이 서초동 소재 세중원에서 식사하면서 친교와 환담을 나누었다. 서중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다. 3차 서중포럼은 10월 27일(수) 저녁으로 예정돼 있고 강사는 아직 미정이다.

방우영 재단설립자, 장서 3000여권 기증

조선일보사에서 일민문고 현판식



현판식에서 방우영 이사(왼쪽)와 방상훈 사장.

재단 설립자중 한 분이자 현 재단이사인 방우영 조선일보사 상임고문이 기자 시절인 1957년부터 수십년간 구독,보관해온 장서 3000여권을 기증해 조성한 ‘일민(逸民)문고’가 6월 15일 조선일보 본관 5층에 문을 열었다. 일민은 방우영 이사의 아호(雅號)이다.

이날 개소식 및 현판식에는 재단이사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변용식 발행인, 강천석 주필 등 조선일보 간부와 조연홍 재단이사장, 윤주영 재단이사, 김문순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일민문고는 일본 잡지인 ‘문예춘추’ ‘중앙공론’ 등 1000여권과, 정치·경제·사회·국제문제 등에 관한 일본서적, 언론학 서적 및 국내언론인의 전집 등 한글서적으로 구성돼 있다. 문예춘추는 1923년,

중앙공론은 1886년 창간된 잡지로 일본 중산층과 지식인 사이에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시사정론지다. 전부 방우영 이사가 직접 구입하거나 조선일보 주일 특파원을 통해 구한 책들이다.

방우영 이사는 “1950년대에는 문예춘추와 중앙공론이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며 특히 한국에서 공산권 소식을 접하는 것은 일본 잡지가 유일한 통로였다고 밝혔다. 또 이 잡지들을 통해 각종 기획기사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도 했다.

이날 방우영 이사는 소장하던 서적 일부가 수해를 입었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978년인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자택 일부가 침수됐는데 집을 잠시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귀중한 책 400여권이 흙탕물에 잠겨 있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새롭다고 돌아왔다.

방우영 이사는 자택에 소장하고 있는 2000여권의 장서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장서 열람 및 대출은 도서목록 작성이 끝난 후 가능하다. 일민문고 현판은 ‘朝鮮日報’ 제호와 같은 글자체로 제작됐으며 서창원 조각가가 만들었다. 서 작가는 재단 설립자인 고(故) 우초 방일영 선생의 흉상과, 지난 봄 조선일보 창간 90주년을 맞아 방우영 이사의 얼굴 부조를 제작한 바 있다.

방우영 이사는 “오랜 기간 소장하다 기증한 책에 다른 책들을 합쳐서 일민문고에 1만권이 채워지면 멋진 조선일보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방우영 이사(오른쪽)가 일민문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기념식에서 내빈들과 함께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조선일보 창간 90주년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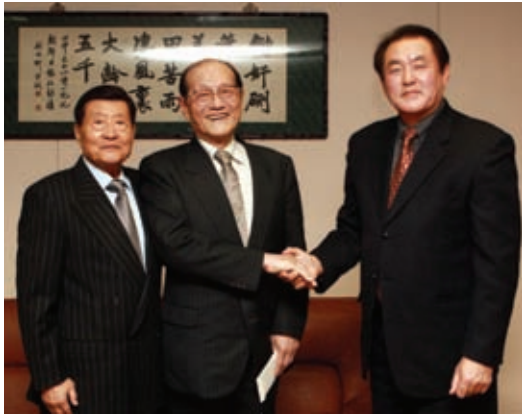
재단 이사인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3월 5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선일보 창간 9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오세훈 서울시장,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일보 방우영 상임고문과 방상훈 사장의 영접을 받았다.

방상훈 사장은 인사말에서 “조선일보는 종이 신문을 넘어서 최고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이어 ‘조선미디어그룹’을 상징하는 CI(Corporate Identity·기업이미지)를 선포했다. 조선미디어(ChosunMedia),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의 첫 글자인 ‘C’를 형상화한 새로운 도안은 향후 조선미디어그룹의 상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일보의 90년 역사를 담은 영상 다큐멘터리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영상물이 소개됐고, 100여명이 참석한 미디어 떡 자르기 행사와 김영삼 전대통령의 축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정주장학회에 장학 기금 전달



모임인 '아이리스'의 이종훈 회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은 3월 22일 본 재단을 방문해 이종식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리 재단 조연홍 이사장은 1월 11일 (재)정주장학회 노유희 이사장에게 장학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재단설립자인 조선일보사 방우영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왼쪽 사진, 왼쪽부터 방 상임고문, 노 이사장, 조 이사장). 재단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정주장학회에 지원한 바 있다. 정주장학회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 인사들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의 이같은 잇단 지원에 대해 정주장학회 출신 졸업생들의



제 27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이 이은정 기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해마다 상금 전액을 지원해오고 있는 최은희 여기자상 제 27회 시상식이 5월 18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 상은 근대 한국의 격동기에 조선일보 기자이자 항일운동가로서 이름을 떨친 추계 최은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올해의 수상자는 KBS 보도본부 이은정 기자. 이 기자는 15년간 경향신문과 KBS에서 과학전문기자로 일하면서 과학의 대중화에 이바지했고, 특히 올해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첫 세빙선 '아라온 호'를 타고 남극 대륙 탐사과정을 생생히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문순 운영위원장(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받은 이 기자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과학자의 길을

접고 기자의 길을 선택해서 인생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결정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학생 15명에 장학증서 수여



방일영문화재단 신규 장학생들이 장학증서를 받은 뒤 방상훈 사장(앞줄 왼쪽), 조연홍 이사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재단은 3월 2일 오후 5시 조선일보사 본관 5층 임원 접견실에서 제 37기 학부 장학생 14명과 제 14기 대학원 장학생 1명에게 장학증서를 주었다. 또 올해 대학을 졸업한 방일영장학생 출신 10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조연홍 이사장과 재단의 여상규 이병욱 최성환 이사, 한백현 김성준 감사, 서중회원들,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과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이사장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국의 젊은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젊어지고 나갈 장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수여식 후에는 코리아나호텔 7층으로 자리를 옮겨 재학생, 졸업생, 서중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가 열렸다.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에게 졸업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순서가 이어졌고 즐거운 저녁 식사로 끝을 맺었다<관련기사 11면>.



김성준 변호사, 재단 감사에

서중회 3기 김성준 변호사가 지난 2월 우리 재단 신임 감사에 선임됐다. 이로써 재단 감사는 3기 한백현 금감원 국장을 비롯해 2명이 모두 서중회 출신으로 채워졌다.

탈북자 강릉씨 대학원 장학생 선발



재단은 1월 13일 제 14기 대학원 방일영장학생으로 연세대 교육학과 석박사과정의 강릉(姜龍·33)씨를 선정했다. 강씨는 2004년에 북한을 탈출해 연세대 교육학과를 올해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입학했다. 강씨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매월 보조장학금이 지급된다.



KBS, 윤주영 이사에 감사패

KBS 김인규 사장은 3월 2일 공사 창립 37주년을 맞아 KBS의 공영방송 기틀을 다진 공로로 우리 재단 윤주영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윤 이사는 1973년 공사창립 당시 방송공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국영이던 KBS가 공영으로 전환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선임



우리 재단 전 이사장이었던 '도서출판 기파랑' 안병훈 대표가 지난 2월 서재필기념회 정기 이사회에서 제 4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안 대표는 3월 10일 한림대에서 제 5회 '일송상' 을 받았다. 수상 공적은 안 대표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셋강 살리기' 와 '한국전쟁 50주년 특별전' 등 다양한 캠페인, 전시회, 출판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와 한국 근현대사 바로잡기에 앞장선 내용이다.

서울대에서 재단에 감사패 전해와

서울대는 2월 17일 재단이 그동안 서울대에 장학금을 보내준데 대해 이장무 총장 명의로 감사패를 보내왔다<사진>. 서울대 소속 방일영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서울대 측은 감사패에서 '출연해 주신 기금은 서울대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데 소중한 사용될 것' 이라고 밝혔다.



원로 국악학자 이혜구 선생 별세

제 2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원로 국악학자 만당(晩堂) 이혜구(李惠求) 선생이 1월 30일 별세했다. 101세. 만당은 1931년 경성제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성방송국에 취직한 뒤 국악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국악과 인연을 맺었고 1959년 정규 대학 과정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음대에 국악과를 설립했다. 1970년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영문으로 한국음악 총서를 만드는 등 전세계에 국악을 알리는 데 힘썼다. 국악을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 한국 음악학의 태두(泰斗)로 불린다.

2010년 상반기 저술지원 신청자 통계

전직 언론인	10명
현직 언론인	25명
△중앙지	9명
△지방지	5명
△방송	6명
△기타	5명
△언론학자	5명
△기타	2명
합계	42명

장학회 수첩 발간



재단은 3월 초 2010년도판 방일영 장학회 수첩 600부를 발간, 서중회원과 장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수첩을 새로 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오래동안 연락이 끊겼

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서중회원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장학회 동기들은 재단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수첩의 사진을 바꾸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전화도 기다리고 있다. 전화 (02)724-5041

2010년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12명 선정

재단은 5월 12일 2010년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저서를 출간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문창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서옥식
한국광고지음심의기구
심의위원



서정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명예교수



선우정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유용원
조선일보 정치부 군사
전문기자



이창훈
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장경수
전 KBS 라디오 뉴스
제작팀 국장



조병량
한양대 언론정보대 교수



진선희
한라일보 문화체육
팀장



최효찬
연세대 미디어아트
연구소 연구원



허두영
과학동아 편집인

서중회 신년회 겸 정기총회 개최

2010년 장학생 신년회 및 서중회 정기총회가 1월 13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장학생과 서중회원, 재단 관계자, 조선일보 임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연홍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서중회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서중회원들을 만나면 항상 기쁘다”며 서중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를 맡은 8기 오양호 변호사의 재지있



격려사를 하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연홍 재단 이사장.



최성환 신임 서중회장.

는 솜씨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서중회장으로 수고한 3기 강희철 변호사의 후임으로 4기 최성환 대한생명 상무가 선임됐다. 신임 최 회장은 대한생명 경제연구원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우리 재단 이사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봄 골프행사 열려

서중회 봄 골프행사가 5월 2일(일요일) 경기도 가평군 마이다스밸리CC에서 열렸다. 서중회가 조선일보사와 방일영문화재단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25명이 참석했다.

조선일보에서는 방상훈 사장, 홍준호 편집국장, 방준오 부장, 문화재단에서는 조연홍 이사장, 이종식 이사, 최병열 이사, 김용원 이사가 참석했다. 서중회에서는 최성환 회장(4기), 김성호 총무(14기), 이수희 총무(15기) 등 총 18명이 참석, 회원 상호간은 물론 조선일보와 문화재단 참석인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현주 회원 외무고시 수석 합격



장학회 32기 김현주 회원(서울대 외교학과 2009년 졸업)이 올해 외무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2차 시험 점수는 69.55점. 올해 시험에는 35명 모집에 188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4대 1이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 회원은 오는 8월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내년에 임용돼 외교 통상부에서 근무한다. 평소 장학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 회원은 “재단에서 많이 도와준 덕택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재민 회원 박사학위

대학원 박사과정 제 12기 고재민 회원이 지난 2월말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이익조정 유형에 따른 가격 결정 및 이익예측 오류 현상의 차이’. 주식시장과 재무분석가들이 당기의 이익조정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가치평가에 적절히 반영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세대 출신인 고재민 회원은 LG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함형우 회원 조선일보 인턴기자 합격



장학회 34기 함형우 회원(연세대 정외과 4년)이 최근 조선일보 인턴기자 시험에 합격, 이번 여름방학 동안 기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여의도 모임’ 활발

서중회 회원 중 서울 여의도 지역에 근무하는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의도 모임’이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3기 한백현 회원(금감원 근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적으면 7~8명, 많으면 10여명이 점심시간에 여의도 ‘독도 참차’ 집에서 만나 한 달 동안 밀린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한백현 회원은 4기 최성환 회원(서중회장)과 번갈아가며 ‘한 톱’을 쓴다고 한다. 앞으로는 휴일 등산 모임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백현 회원

‘광화문 모임’ 출발

서중회원 중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일하는 멤버들이 모이는 ‘광화문 모임’도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점심때 중구 다동 ‘남포면옥’에서 열린다. 주축은 SK 팀과 조선일보 팀. 이 모임 출범에도 한백현 회원이 많은 역할을 했다. 지난해 명동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파견나와 있던 그는 을지로 입구 SK빌딩에 근무하는 서중회원들을 생각해 냈고, 그 후 한국은행 팀, 조선일보 팀에 연락해 모임을 꾸렸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24기 김영철 회원이 총무 역할을 맡았다. 작년 12월 첫 미팅을 가졌고 이후 매번 1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서중회(序中會)의 휘황한 미래를 조명하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강릉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 · 대학원 14기>



장학증서를 받은 새 장학회원들(앞쪽 두줄)들이 서중회 선배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3월 2일 방일영문화재단에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학부 제37기 방일영장학생과 대학원 제14기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모임이 열렸다. 14명의 학부생들과 대학원생인 필자를 포함하여 15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는 시작부터 베풀과 감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더욱이 장학생 출신들의 모임인 서중회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이번엔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까지 참석한 수여식은 의미가 깊었다. 조연홍 재단 이사장님께서서는 직접 장학생들에게 증서를 주시어 긴장한 학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셨다. 새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주고, 졸업생들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하는 식순이 끝나자 이사장님의 격려

사가 있었다. 또 방일영문화재단에 대한 이사장님의 설명은 설립자들의 민족애와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재단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축소판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재단측이 이날 학생들에게 나눠준 ‘서중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나는 이 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오래된 장학재단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1928년 평북 정주에서 계초(啓礎) 방응모(方應謨) 선생은 “우리가 좀 더 힘 있게, 좀 더 크게, 좀 더 잘해보기 위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육영사업을 시작하셨고 1932년 한 해 동안 지급한 장학금만도 그 시기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만2천여원이었다고 한다. 요즘 4억원이 넘는 큰 돈이다. 계초 선생께서는 이어

1933년 동아일보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족지로 명성을 떨쳐온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어려운 회사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으로 장학 사업을 후원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1940년 조선일보가 폐간된 뒤에도 한글보급 운동 등 민족혼을 지키고 장려하는 애국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신 계초 선생은 6.25전쟁이 일어나 남북도시기 전까지도 장학 사업을 이어오셨다. 계초 선생의 뜻을 받들어 재단 설립자이신 방일영 당시 조선일보 회장과 방우영 사장 형제분은 1974년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방일영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93년 장학회는 방일영 문화재단에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단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국내외의 언론발전과 국악을 비롯한 민족문화 발전, 세미나 개최, 출판, 우수 교사 표창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장학회의 도움으로 수많은 장학생들이 법조계, 재계, 학계, 금융계, 언론계, 공기업, 종교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재단의 명예와 함께 설립자의 취지에 맞게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녔고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우수한 학생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도와

주는 방일영장학회와 서중회원들을 보면서 그의 일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는 서중회 선배님들의 덕담과 축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신입생들의 장기자랑이 웃음과 재미를 듬뿍 더해주었다. 끼가 가득한 신입생들은 마이크를 잡고 열창(熱唱)과 열무(熱舞)로 분위기를 달구었다. 지금의 느낌을 이야기하라는 사회자의 멘트에 “배부른 느낌 밖에 없다”며 유머를 던진 신입생들은 장학회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장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졸업생들은 “장학금을 사랑하지 말고 장학회를 사랑하는 장학생이 되라”는 선배다운 이야기로 신입생들에게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갖도록 당부했다. 서중회장님은 선배들이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후배들은 꼭 이루길 바란다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배려를 환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중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의 산실로 자리나기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남과 북을 둘다 체험한 나는 남북통일의 가교(架橋)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서중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결심하면서 식장을 나섰다.

유학생 글

프랑스에서의 한 학기를 보내며

박신영 <장학회 36기 · 고려대 경영학과 3년>

안녕하세요?
방일영 문화재단 장학생 36기 박신영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으로 현재는 교환학생으로서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프랑스 행 비행기를 탄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고 또 다른 한 학기가 끝나가네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학기에도 재단의 도움으로 걱정없이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었고 처음 겪어보는

서중회 교수 모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중회원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2월 1일 오후 6시 재단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서중회 1기 정영일 교수 등 6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조연홍 이사장은 회원들의 근황을 묻고 “서중회 교수들간에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해보자”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태영, 전병헌, 정영일, 김진국, 성태운, 여태천 교수.

이어 코리아나 호텔 중국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당장 학술 모임 개최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장학생 여름수련회에 교수 선배들이 참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 등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중회원들이 참가하는 공개강좌 개최도 논의됐다. 이런 경우 강사와 토론자로 교수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이날 모임에는 1기 정영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병헌(고려대 경제학과), 4기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 국제학부장), 15기 유태영(한국외대 경영학과), 16기 성태운(연세대 경제학부), 대학원 6기 여태천(동덕여대 국문과) 교수가 참석했다.

서중회원 동정

- ♣ **김현곤** 회원(8기·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기획단장)과 **이인찬** 회원(8기· SK홀딩즈 사업지원실장)이 (재)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이사로 선임됐다.
 - ♣ **임태섭** 회원(10기· 전 서중회장)이 지난 2년간의 홍콩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 임 회원의 새 직장과 직위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 직장 주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19층 (우)110-786. 전화번호 3788-1401.
 - ♣ **이병찬** 회원(13기)이 5월 11일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 **박재현** 회원(15기· 현재 뉴욕 Baruch College 심리학과 부교수)은 ‘배심제와 법심리학(오래출판사)이라는 저서를 집필중이며 10월말 이전에 출간 예정이다.
 - ♣ **송승훈** 회원(22기)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에서 선임 조사역으로 승진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로 파견됐다.
 - ♣ **김영철** 회원(24기)이 3월 2일 삼일회계법인을 떠나 예일회계법인 이사로 옮겼다.
- 새 직장연락처: 02-2037-9238, 변경된 이메일: yckim@yeilac.co.kr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박신영 회원.

외국에서의 생활로 전문을 넓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앞으로 교환 유학을 생각하는 재학생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몇 글자 적어봅니다.

학교생활

ESSEC은 'Ecole Superieure des Sciences Economiques et Commerciales'의 줄임말로, 프랑스의 상경계 그랑제꼴이며 특히 프랑스 내 순위 1,2위를 다투고 세계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MBA 과정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ESSEC의 학부 과정인 'EPSCI'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 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국과는 사뭇 다른 학교의 분위기에 많이 놀랐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학과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격증을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에 파묻혀 생활하는 한국 대학생들에 비하면 이 곳의 프랑스 학생들은 한결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사람들은 정말 'Hard worker'라는 생각을 여기에 와서 많이 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곳 학생들이 마냥 여유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취업을 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 경험에서 어떤 능력과 태도를 보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장기간의 인턴십을 필수로 요구하며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 만큼 학교 수업에서의 부담이 적은 대신 자신에게 적합한 인턴십 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니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이 영미권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영어권 국가가 아닌 만큼 영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등 조금 걱정을 했었고요. 예상했던 만큼 수업의 선택폭이 넓진 않았지만, 프랑스 학생들은 물론 미주, 아시아에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이 많았던 만큼 굉장히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보다 토론과 발표가 굉장히 중시되는 이 곳에서 공부하며 수업의 질에 대한 걱정은 금방 털어버리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생활 엿보기

이젠 어느 정도 적응되었지만, 이 곳의 느린 행정 절차와 사람들의 느긋함은 처음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은행계좌를 여는 것부터 서류 허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것까지 답답한 행정 절차를 계속 거치면서 짜증도 많이 났지만, 이 곳의 방식이 그러함을 이해하려고 애쓰니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느린 행정절차는 그렇

다 쳐도 무엇보다 사람들이 여유있게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조금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프랑스 친구를 만나게 되어 친구와 친구의 가족과도 자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함께 겪어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전까지 책으로만 읽고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이곳의 문화를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문화권이자 다른 나라이니만큼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움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한국보다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은 부러웠고, 시시 때때로 파업 때문에 혼잡한 교통 시스템을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의문도 가집니다. 퇴근 시간을 넘겨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1년에 최소 4주 이상의 휴가까지 보장되는 것을 보고 놀라웠지만, 연중무휴로 늦은 시간까지 식당과 가게가 열려있는 한국이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는 것 외에도 프랑스인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새



친구들과 함께한 박신영(왼쪽에서 두번째) 회원.

롭게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자’는 교환유학의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우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음식이 그리워서 의기소침해 있던 적도 많았지만, 분명 얻은 것이 더 많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이곳에서의 생활도 끝날 거라 생각하니 많이 아쉽지만,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밑거름으로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도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경제적 걱정 없이 유학생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방일영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과 재학생 분들 모두 월례회와 그 외 재단 모임 때 즐거운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학회 하계수련회를 다녀와서



말에서 내리기도 힘든데.



화살이 과녁에 명중!(교관의 도움으로).

방일영 장학생이 된 후 처음으로 7월 2일부터 1박 2일간 하계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다. 장학생이 되어서부터 하계수련회에 대해 선배들께 많이 들어온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런데 막상 비가 많이 내려 내심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일정을 보니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오후에 들어서서는 비가 조금씩 그쳐서 다행히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오전 9시 반에 사무국에 도착해보니 벌써 여러 선배들과 동기들이 도착해 있었다. 방도마 간사 선배와 진옥 언니는 아침을 먹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빵과 물을 사오셨는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사했다. 알지 못했던 선배, 동기들과 버스에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았다. 같은 기수인 진기는 농활을 갔다가 바로 오는 길이었고, 태목이는 가족여행이 있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간을 맞추어 수련회를 떠난다는 것이 뜻 깊은 기회임을 새삼 느꼈다.

이번에 수련회를 떠나는 곳은 강화도였다. 고등학교 국사시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여러 번 강화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방문해본 적은 없어서 더욱 설레

었다. 서울과 그리 멀지도 않고 바다도 볼 수 있어서 여름 수련회 장소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낮 12시에 강화도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장항리에 있는 자연체험농장에 갔다.

처음 타본 말과 일체가 되어...

그 곳에서는 승마와 활쏘기, 그리고 갯벌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승마를 했다. 교관에 따르면 말은 보통 500kg이 넘으며, 320도 넓이로 전방을 볼 수 있어서 시야가 무척 넓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잘하고 다른 말을 따라하는 모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세 번째 말인 '사랑' 이가 난동을 피우자 네 번째 말 '믿음' 이도 똑같이 뒷걸음질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모두 세 번째 말을 타기를 꺼려했지만 다들 승마에도 소질이 있는지 일단 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말과 혼연 일체가 되었다.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승마가 조금 무서웠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배워볼까 하는 생각에 승마 모자를 집어 들었다. 나는 4번째 말을 탔는데, 말을 탄 느낌이 굉장히 신기했다. 말의 뼈와 근육의 움직임이 내 몸으로 전해져오고, 함께 이동



갯벌체험을 하고 나서.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익숙해질 무렵 몇 바퀴를 돌고 내려오니 온 몸의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리가 떨렸다. 말을 1시간 타면 1000kcal가 소모된다고 하던데, 왜 그러한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몽이 된 기분으로 활쏘기에 몰입

다음으로 활쏘기를 하려고 모였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활은 총 3가지로 국궁, 석궁, 양궁이 있는데, 우리가 배워볼 활은 양궁이었다. 화살과 시위가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엄지와 검지로 시위를 잡아당겨 쏘는 것이었다. 볼 때에는 굉장히 쉬워보였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민경 선배는 화살이 계속 빗겨가서 아쉬웠는데, 기림 선배는 갯 제대를 한 탓인지 굉장히 활을 잘 쏘았다. 나는 한나 선배와 나란히 활을 쏘았는데, 과녁에 맞았을 때의 그 쾌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다들 마치 주몽이 된 것처럼 활쏘기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갯벌체험을 하러 갯벌 안으로 들어갔다.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갯벌로 무려 1억 4천만 평이나 되었다. 이 갯벌은 특히 자갈이나 돌이



전등사 앞마당에서 단체 사진.

없고 입자가 부드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정도로 안전했다. 또한 갯벌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았고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갯벌에 들어가서 옷이 더러워질까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준재 선배 등 여러 남자 선배들께서 갯벌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미끄러지면서 놀게 되었다. 갯고랑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서 장난도 쳤다. 모두들 어린 아이가 된 듯 모든 생각을 잠시 집고 갯벌에서 재밌게 놀았다. 또 갯벌에는 게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밑에 게가 평균 10마리가 서식할 정도였다. 그래서 교관님의 설명에 따라 게를 잡았는데, 크기가 작은 게부터 큰 게까지 굉장히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후에는 잡은 게들을 모두 다시 풀어주었는데,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다.

갯벌 축구로 월드컵 선수 부럽지 않아

그리고 나서 평지 갯벌에서 마지막으로 축구를 했다. 갯벌에서 뛰어다니며 넘어지고 다들 골을 넣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다. 나도 수비를 하면서 공을 막았는데, 다들 갯벌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니, 그 열정만으로는 월드컵 선수에 못지않았다. 갯벌에 발이 쑥 빠져서 더 힘이 들었지만 굉장히 즐거웠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자연체험농장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곳 이름은 장곶 횃집이었는데, 강화도에서 낙조가 잘 보이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곳에서 화와 매운탕을 먹었는데, 다들 배가 고팠는지 주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반찬을 다 먹었다. 갯벌에서 놀다가 먹은 저녁은 그 어떤 식사보다도 맛있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모두 긴장도 풀리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낼 수만은 없어서 다같이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엠티의 꽃이라 불리는 게임을 시작했다. 서로 3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별칭으로 술잔을 받으면서 어색했던 감정이 녹아 없어지고 화목함이 자리했다. 용빈이의 재치와 성우 선배의 입담은 분위기를 띄우기에 충분했다. 계절 학기 수업 등을 듣고 늦게 오신 선배들이 합류해 더욱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7시 반 쯤에 일어났다. 원래는 산 트레



광성보 '암문' 을 두손으로 번쩍!



110년 된 강화읍 한옥 성당에서.

킹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들 피곤하고 비가 내린 탓에 강화도 유적 탐방으로 대체되었다. 강화도는 유적이 많았는데 우리가 들른 곳은 전등사와 광성보, 그리고 성공회 강화성당이였다. 먼저 전등사라는 사찰을 들렀는데, 그 사찰에 있는 대웅보전에 관한 국장님의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추녀에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여자의 조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목수를 배신한 여자를 벌하기 위해 평생 지붕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각이라는 것이다. 건물에 그러한 전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를 끌었다. 또 산 속에 위치한 사찰이어서, 안개가 자욱이 낀 사찰 모습 자체도 무척 운치 있었다. 그 후에 강화도 해안 수비의 진지인 광성보에 들렀다.

광성보에는 조상들의 원혼이 서린 듯

광성보는 신미양요 때 미국 군대와와의 격전이 벌어졌던 곳인데, 생각보다 터가 좁았다. 그러나 광성보에서 보이는 바다는 넓고 웅대했는데, 바다 건너편은 김포가 위치했고, 조선시대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그 바다를 통했다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동기인 연재는 그 곳에서 조상들의 원혼이 느껴진다고 했고, 우재 선배는 그 곳에서 시조를 읊으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성공회 강화성당이였다. 한옥으로 지어진 성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굉장히 낮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화로웠다. 특히 청동 중에는 성경의 글귀가 적혀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놀라웠다. 외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웬지 모를 강직함도 묻어나왔다.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곳을 뒤로 하고 버스를 향해 걸으니 심신이 정화된 듯했다.

유적 답사를 마친 후 점심에 한우 불고기를 먹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다들 피곤한 듯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러웠다. 혼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좋은 경험과 추억들을 장학회 선배,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벌써부터 다음 수련회가 기대된다.

박선임 <연세대 정외과 2년 · 장학회 37기>

4월*

신응수 (대목장·경복궁 복원 책임자)

궁궐 건축과 소나무

한 나라의 궁궐은 그 나라의 뿌리이다. 궁을 보면 그 나라의 건축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경복궁을 지었다. 경복궁은 풍수적으로 정말 알맞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정궁인 경복궁은 창경궁과 창덕궁 같은 이궁과 구별된다.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궁과 달리 정궁은 선이 잡혀 있다. 경복궁 정문 광화문은 조선 후기에 지어져 전기의 승례문 등과는 다르게 문이 3개이다. 또한 간결하고 건축미가 있는 승례문과 달리 광화문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추녀의 모양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완만한 승례문의 추녀와 달리 경복궁의 추녀는 웅장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 모습을 하고 있다.

궁궐의 목재는 항상 소나무였다. 그 중에서도 100년 이상 된 적송을 사용한다. 소나무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송진이 있어 목재로써 짜임새가 있다. 송진은 방부의 효과도 있다. 이에 더해, 소나무는 참나무와 달리 비교적 강하면서도 결이 살아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복궁을 짓고 복원할 때마다 100년 이상 된 질 좋은 소나무 목재를 공수하기 위해선 전국에 방을 붙여야만 했다. 최근의 복원은 산림청에 의뢰해 소나무 목재 공급이 이루어진다. 소나무는 단순히 목재로서만 아니라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어 궁 뜰 곳곳에 심어져 있기도 하다.

궁궐에 쓸 소나무를 벨 때에는 ‘어명이요’ 라고 외치고 도끼로 세 번을 가볍게 찍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하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에 나라의 명을 빌어 소나무와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나무는 궁궐의 목재가 되면서 몇 백년 살 것을 천년 이상 살게 된다. 나라에서 보호한 까닭이다.

시련의 역사 - 경복궁과 광화문

경복궁과 광화문은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태조 때 세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흥선대원군 때에 이르러서야 복원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다시 뜯겨나가고 불탔다. 사정전, 경회루 등 10여 채만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일제는 근정문을 해체하고 남산 방향으로 조선총독부를 짓기도 했다. 왕의 침전이었던 강녕전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교태전의 경우 일제가 방치하다 창덕궁 화재 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건물을 이전시키기도 했다. 일제는 정궁을 훼손하며 민족 정신의 말살을 의도했던 것이다. 광화문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에 콘크리트 등을 활용해 복원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총독부건물을 해체하고 흥례문을 복원해보니 궁에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축(시정전-근정전-흥례문)이 5.6도 비뚤어진 것이 드러나 제대로 복원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복궁 복원은 1991년부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강녕전과 교태전을 95년까지 복원하였다. 이와 함께 흥례문과 해당 권역의 궁 건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세자가 있었던 동궁권역을 복원하였다. 동궁전의 기반



승례문 복원 현장의 신응수 대목장

은 일본 오키나와 정원에 있던 것을 삼성재단에서 인수해 들여왔다. 기존에 있던 나무를 교체해 세자의 기품이 느껴지도록 복원하였다. 3차로는 태원전을 복원했다. 태원전은 황제 폐하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업무를 주관하던 곳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인 건청궁도 복원했다. 일제가 태원전을 없애고 그 터에 민속박물관을 세웠기에 박

물관을 다시 없애고 복원해야 했다.

광화문은 잘못된 위치 때문에 이전시켜야 했다. 그런데 이전에 복원하려면 주변 도로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성곽의 일부만 복원할 예정이다. 물론 향후 주변 지역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기도 하다. 광화문은 20년 계획으로 복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1차적으로 올해 8월 15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G20회의가 열리는 것에 맞추어 일정이 두 달 정도 앞당겨졌다.

나는 9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20년 간 경복궁을 복원하고 마지막으로 광화문 복원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경복궁과 광화문을 복원하기 위해 우선 10분의 1의 크기로 모형을 만들었다. 현재 모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모형은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립하는 실제 한국 건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을 요구한다. 또 철저한 고증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번 건축이 이루어지면 보수를 하더라도 처음 방식을 따

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 터를 발굴할 때 고종 때의 기초 아래에 태조 때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 기초들을 남겨둔 것은, 후대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이윽고, 실제 복원을 시작했는데 목재는 옛날 고가에서 구하는 경우도 많다. 광화문을 짓는데 어려운 점은 흔들리지 않고 뺏어나가는 처마선과 기둥 사이에 가구를 짓는 다포 양식의 구현이었다. 복원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삼릉이라는 문서를 건물에 담았다. 이 문서엔 건물에 대한 설명과 장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승례문 복원 도편수로 활동

국보 1호 승례문의 화재는 정말 유감스러운 사건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승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 더욱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에 공문을 내 실측해 모형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다른 일 때문에 하지 못했다가 화재가 나자 자비를 들여 모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 모형은 현재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중에 문화재위원 회의에서 본인이 승례문 복원 도편수를 맡게 되었다. 일단 겨울철 건조한 날을 골라 강원도 삼척의 준경묘에서 제를 올리고 벌목하여 목재를 확보했다. 일련의 준비가 필요했기에 해체공사는 화재 2년 뒤부터 시작되었다. 승례문은 2012년 성곽과 함께 최종 복원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승례문이 더 이상 국보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1층 건물의 90%가 소실되지 않았고 성 자체가 국보이기에 그 가치가 화재를 통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례문 화재를 통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재와 그 관리에 대해 관심이 커지게 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강연을 통해서 문화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두고두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함을 인식하면 좋겠다.

〈정리: 방도마 · 서울대 정치학과 3년 · 장학회 간사〉

5월*

이문열 (작가)

인터넷 광장의 소통 문제

나는 10년 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장당한 적이 있다. 그 화장은 인터넷 광장에 의한 것이었다. 10년 전 국민의 정부 시절 어떤 세무서 4급 공무원이 조·중·동 시주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3대 지상파 방송들은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해 그 사건을 보도하며 신문사 시주들을 규탄하였다. 본인은 이에 대해 그들이 죄는 있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 정도가 심해 순수한 보도 정신 이상의 나쁜 의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에 근거해 ‘신문 없는 정부 원하나?’ 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하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 표명은 상당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본인의 홈페이지가 폭주할 정도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온갖 비난을 다 하였다. 나는 이런 비난들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내 책을 사서 읽은 것이 후회스럽다는 사람들에게, 책을 돌려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생기게 되었다.

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매체에서 환불해 주겠다고 말이 오만하다고 여론을 선동하였고 일부에선 ‘이문열 책 반환 운동’ 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반환 운동을 진행하고는 여의치 않자 본인의 마을 주변에서 책을 모아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하였다. 이후엔 충북 옥천의 한 마을에서 2차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조형물을 화장시키고 본인의 책을 나무에 매달아 풍장시켰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계속 받은 스트

레스 때문에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였고 실제로 미국으로 잠시 떠나기도 했다.

인터넷 테러

세계사적으로 볼 때 크게 3대 발명품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활자이다. 나는 앞서 제시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활자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대량 인쇄가 가능한 활자가 발명된다는 것은 당시의 지배계층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기존 책은 상당히 신성하고 귀해서 성경 등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만 기록하였고 성직자, 귀족 등의 특권 계층만 사용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활자 발명 이후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책의 가격은 상당히 낮춰졌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성경 등의 신성한 책들이 속어로 번역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히며 상대적으로 많이 읽을 바탕으로 권력을 누리던 특권 계층은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책의 힘은 다른 점에서도 부각되었다. 누구나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게 됐기에 음란물, 이단 등 지나치게 저속한 내용들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늘어났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로 사회가 타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당시 활자 기계를 악마 기계로 취급하며 부정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활자 매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정 작용을 거쳐 당시 사람들이 우려



이문열 강사(앞줄 가운데)가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본인은 90년대 한국에 도입돼 보편화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이런 활자 매체와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 염려를 했지만 나중에는 활자 매체와 같이 자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기대는 앞서 제시한 테리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내가 염려한 방향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과연 인터넷은 어떤 공간이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이는 바로 인터넷은 광장과 같이 발신자 수신자 구분 없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광장은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나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아테네 아고라 광장도 처음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괜찮은 곳이었지만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광장을 지배하면 누구나 아테네를 지배할 수 있었기에 일부 빈민들이 야심가랑 공모해 광장을 장악하며 선동정치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군중과 지도자들이 모두 진정성

없이 저속한 계약관계를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타락의 길로 이끈 것이다. 로마의 경우, 이런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대의제, 후에는 왕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광장은 지속되어 왕의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광장에서의 쌍방향성도 앞서 제시한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상호작용한다는 인터넷 광장을 정보의 공급처로써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허구적이다. 사실 열린 광장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허구에 공감할 뿐이면서 그 의견을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해버린다. 더구나 그렇게 소수 발신자의 경우도 익명성 뒤에 숨어서 많은 글(도배)을 통해 의견의 수를 조작하기에 진정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의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촛불 시

위 등에서 이를 많이 경험했다.

인터넷 왜곡 처벌과 피해자 구제법

이렇게 쌍방성의 신화에서 비롯된 인터넷 광장의 왜곡된 표출구조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광장의 왜곡을 주도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디어 법 중 인터넷 피해 구조법 도입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이 법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미 명예훼손법 등이 있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굳이 만들려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의 기존의 구제법은 인터넷 피해 구제법과는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도입에 있어 시대적 맥락이 다른 법이다. 19세기에 명예훼손법이 만들어진 맥락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인터넷 시대는 한 사람의 행위가 순식간

에 몇 천명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왜곡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넷 피해를 재범률이 낮다며 형이 낮으며 벌금도 미미한 명예훼손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광장의 타락은 더욱 심해졌고 최근 몇 년 동안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이어졌다. 진정성 없이 광장을 타락시키는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 인터넷 광장의 위험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계해서는 말이다. 항상 익명성과 쌍방성의 신화 뒤에 숨겨진 발신자의 진정성을 평가해야 하고 왜곡된 정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것을 하기 어려우면 아예 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정리: 방도마 · 서울대 정치학과 3년 · 장학회 간사〉

6월*

엄홍길 (산악인)

등산과 나

2007년, 20년의 인생을 산에 바친 나는 8000m 이상 되는 16개의 산을 한국인 최초로 등정하였다. 산에 올라가는 데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정상이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나는 문명 세계의 인간으로서 많은 도전을 통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느꼈던 성공과 좌절, 희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으나 세살 때 수도권 어느 산기슭의 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집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통학도 산길을 30여분 오르내려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산을 알기 전에는 이런 데 집을 둔 부모님, 그리고 산에 대한 원망이 앞서기도 하였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산골짜기에 살아야 하는지 열등의식이 있었다.



엄홍길 강사(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함께 했다.

산은 나의 놀이터이자 삶의 공간

하지만 그런 원망의 대상인 산은 어느 순간 내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주말에 부모님은 암벽을 타시는 분들을 위해 산장을 운영했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절벽 오르는 것에 대해 동경을 하게 되었다. 이윽고 중2때부터 암벽 등반을 시작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산은 나의 놀이터이자 삶의 공간이었기에 신체구조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에 적합하게 되었고 따라서 빠른 속도로 등반 기술을 터득해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배, 동기들과 함께 전국 산을 돌아다녔다.

등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체력, 정신력 등을 어느 정도 터득하자 목표가 더욱 넓어져 한국의 1000m 높이 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산에 오르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 1986년 산악인의 이상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로 했다.

이런 목표는 상당히 무모한 것이었다. 물론 최초의 에베레스트 국내 원정 팀은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그렇지만 고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목표의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탄탄한 팀웍이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고산 원정 시에는 항상 동료들 먼저 생각해야 하는 집단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무사한 일주이나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대원들은 고산 원정에 적응할 수 없을 뿐더러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비록 무경험자들이었지만 이런 집단주의에 있어서도 그 당시 팀은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모했던 것은 해외 고산 등반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점이다. 리더는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제 몫에 맞는 역할을 담당시켜야 한다. 그 역할이란 등산에 필요한 경비

조달, 행정, 통역, 촬영 등 등산 외적인 역할들까지도 말이다. 재정의 경우 식량 및 장비, 포터 뿐 아니라 네팔의 경우 입산 허가료만 해도 5인 기준 8000만원에 육박한다. 그리고 고산병 적응 훈련, 운송수단에 대한 이해 등 관련된 모든 준비들이 요구된다. 그 당시 팀원들은 그런 데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물론 확실한 목표의식과 우리라는 인식 아래에서 겨우겨우 베이스캠프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큰 기쁨에 잠기고 정상 정복을 기대했지만 산은 '준비 안 된' 인간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었다. 산을 올라갈수록 인간 엄홍길은 한 점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갖은 고생 끝에 우리는 어떤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참담한 실패만 맛보았다.

동료를 잃은 참담한 실패

하지만 나는 에베레스트를 포기하지 않았다. 딱 1년 만에 다시 도전하였다. 두 번째는 기존 실패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현지 행정절차, 역 단위에 이르는 경비 예산 문제 등도 무난히 해결하였다. 체력과 기술, 정신력 등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등산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자 보름 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산은 자신을 우습게 아는 인간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곤 한다. 오르던 어느 날 세르파(히말라야에 사는 토착민들로 주로 산악인들의 집꾼으로 생활을 영위함) 2명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무전기로 동료 한 명이 추락해 안 보인다는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믿이 안 보이는 절벽에 있었다. 그 순간 우습게 보이던 산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공포감으로 엄습해왔다. 발걸음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겨우겨우 그곳을 빠져나왔다. 절벽을 내려가다가 그 동료의 찢긴 옷가지와 신발 등을 발견했다. 사방에는 선혈이 낭자했으며 까마귀가 날아다녔다. 나는 차마 자세히 보지 못하고 혼비백산으로 내려와 망연자실 상태로 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 세르파 동료는 크레바스에 떨어져 찾을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히말라야 등반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며 원정을 포기하고 내려갔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실종된 세르파의 고향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에겐 홀어머니가 있고 신혼 3개월인 부인이 있었다. 마을은 이미 동료의 죽음 소식에 온통 슬픔만이 가득했다. 정말 참혹한 심정이었다. 그 대신 나에게 사고가 났어야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계속 잊으려 했던 산은 자꾸만 나를 불렀다. 넌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며 속삭이는 듯 했다. 나중에 오기가 생겼다. 에베레스트에서 희생된 동료를 위해서라도 다시 금 산을 올라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88년 서울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에베레스트에 세 번 째로 도전하였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정상에 오르자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었다. 네팔의 설산들, 티베트의 광활한 사막과 모래 산들의 끝없는 연속 앞에 나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에베레스트에 오르자 상당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지만 고산을 오르는 것은 자신감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 이후 원정에 여섯 번이나 실패했다. 등반 중 사고가 나서 동상에 걸려 수술을 하였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 마디까지 자르기도 하였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동료가 가자면 영혼 깊은 곳의 이끌림으로 인해 따라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된 실패의 기억이 나를 짓눌렀다. 기필코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보다는 시작하기도 전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8000m급 히말라야 14좌 완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시만 해도 14봉 등좌는 서양인 3명만 성공했다. 경험도 체력도 부족한 한국인이 완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나는 영혼의 이끌림에 따라 도전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14좌 등반을 계획하고 있던 1995년 한 스페인 친구가 남미에

서 만났을 때 같이 8000m급 고산을 등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2~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등반은 앞서 말했듯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나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공료와 개인장비만 준비하고 오면 나머지는 자신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다. 등반에선 팀웍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문화도 다른 유럽 사람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한국에 돌아와 고민했다. 그러곤 이내하기로 결심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만나자는 전화 통화를 하고, 스스로 자신과 약속했다. '합류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희생하자' '때시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팀 내에서 항상 솔선수범하자'.

꿈에 도전하다

이윽고 등반이 시작되었다. 어색한 사람들과 함께 등반을 하니 팀 전체의 분위기가 별로였으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기에 모든 어려움을 헤쳐가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원들은 차차 나에게 마음을 열여갔다. 하지만 그 팀은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을 올라가는 데 두 번이나 실패했다. 50여일을 그렇게 악전고투하니 산이 보기도 싫어질 정도였다. 대원들이 이야기만 하지 않을 뿐 대장의 강행군에 대해 불평과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었다. 이윽고 대장은 대원들을 불러 모아 포기하고 내려가자고 하였다. 모든 대원들은 대장의 결정에 환호했다. 하지만, 나 역시 그 말을 정말로 기다렸으나, 막상 듣고 보니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장에게 가서 '지치긴 했지만 심사숙고해서 다시해보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속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재도전하자고 설득하였다. 물론 대원들은 나에게 많은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끝내 대

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정되었다. 대원들은 불만이었으나 점점 의기투합하여 세 번째 만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르고 나니 체중이 13kg 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값진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14좌 등반 목표를 설정했고 그 이후 에베레스트를 오른 지 16년 만에 파키스탄의 K2를 정복하며 그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 그리고 그 꿈의 성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전이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2007년 5월까지 히말라야 이외 지역에 있는 2개의 8000m 이상 산을 정복하며 16좌 등반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성공은 꿈 덕분이었다. 그렇기에 8000m 16좌 등반을 위해 38회를 도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성공은 동료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없었을 것이다. 10명에 이르는 동료를 도전 중에 잃었다. 그 중 가장 슬픈 희생은 안나푸르나 원정이었다. 안나푸르나는 다섯 번만의 도전 끝에 등정했고 그곳에서 3명의 동료를 잃었다. 네 번째 도전에서는 로프에 발목이 감긴 채로 추락해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발이 완전히 꺾인 뒤 앞뒤가 뒤틀려 버리기도 했다. 바로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등산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이미 2명의 동료를 잃은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활치료 등 갖은 노력 끝에 10개월 만에 다시 안나푸르나에 도전해 끝내 등정에 성공했다. 그 때 다시 1명의 후배를 잃었다. 당시 정상을 올랐을 때 그저 고통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청자는 가마 속에서 36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뎌야만 아름답게 되는 법이다. 나 역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도전하였기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정리: 방도마 · 서울대 정치학과 3년 · 장학회 간사)



재단지원 신간안내

new books



경제생활백서 (이경은 글)

조선일보 경제부 재테크팀장인 저자가 지난 7년 동안 돈의 흐름을 쫓아다니며 익힌 재테크 정보와 경제를 읽는 안목을 책에 담았다. 유망 금융상품의 명암을 치밀하게 파헤쳐 얻은 객관적 정보와, 치열한 머니게임 전쟁터에서 금맥을 캐내는 고수들을 만나 얻은 교훈까지 독자들과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실물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책은 특히 고령화와 조기퇴직의 덫에 걸려 버린 20~30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자세히 다뤘다. 지금의 20~30대는 예전 세대와 비교하면 땅을 치면서 억울해 해야 할 만큼 부자 되는 문턱이 훌쩍 높아졌다. 자칫 멍하고 앉아만 있다면 40, 50대가 됐을 때 후회하기 십상이다. 책은 또한 불황을 이기는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시대 흐름을 다각도로 통찰해낸 지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경제 마인드를 진단하고 펀드·주식·부동산 투자의 실체를 해부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투자 습관을 짚어낸다. 현재 가장 인기 높은 유망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참부자들의 경제 습관을 추적하여 진정한 부의 비밀을 파헤친다. 비아북, 1만3000원.



권력은 짧고 언론은 영원하다(이상우 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시대에 언론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46년간 현역으로 똬똬한 저자가 기억을 더듬고 기록을 들추며 '경험'을 정리했다. 1962년 당시 대구일보 사회면 편집자였던 저자는 '사지폐(私紙弊) 사건'을 특기사로 보도하도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변란죄'로 대구형무소에 갇히고, 다행히 한달여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대구일보 사주였던 여상원 사장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찾아가간 덕분이었다. 편집기자로서 써해서는 안되는 아찔한 경험들도 있다. 대학교 2학년 때 영남일보사에 견습으로 입사한 필자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만다. 사회면 기사에 '個武臺에 時計 10景 기증'이라는 제목이 잘못 나간 것. 個자와 景자 두 자가 뒤바뀌는 바람에 대통령 집무실이 '개무대'가 되고 말았다. 편집국은 발칵 뒤집혔다. 윤전기는 세워졌고, 가판 나간 신문들은 재빨리 회수되었다. 그러나 이 일로 필자는 경북 경찰국 사찰과 형사들에게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훈방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필자가 겪은 일들은 크게 보면 대한민국 언론 역사의 실상이며 한 단면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 느낀 바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 "권력은 짧고 언론은 길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만5000원.



뉴스 크리틱, 100편의 진단서(김재동 글)

수년간 YTN 보도 영상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비평해온 저자가 YTN이 송출하는 방송물 100편을 주제별로 분류해 분석했다. 심의의 대상은 리포트, 단신, 영상 구성, 대담, 기상, 그래픽 등 뉴스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루되, ID, 로고송, 캠페인 등 스테이션 브레이크(SB) 시간을 통해 송출하는 거개의 이미지를 포함시켰다.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YTN



본사와 지사 그리고 지역 SO 등에서 제작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심의했으며, 2장은 영상 자료의 활용, 영상 편집의 논리성, 영상 자료의 생산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정리했다. 3장은 영상 구성을 포함해 영상 리포트, 영상 히스토리, 새털 뉴스 등 실험적 뉴스 형식을 모았고, 4장은 기후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뉴스에 대해 다뤘으며, 5장은 초상권 침해와 간접광고, 공정 방송 등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내용, 그리고 6장은 잘못된 대담 구성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모델을 분석적으로 제시했다. 7장은 YTN의 제보 시스템을, 8장은 뉴스 그래픽 분야에 대해서, 9장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10장은 SB 영상에 대해 심의했고, 방송 심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만8000원.

라인강에서 띄우는 행복편지(유한나 글)

독일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필자가 몇년동안 짬짬이 써서 모아두었던 수필들을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1부에서는 독일에 살며 생활 속에서 쓴 글들이며, 2부에서는 감사의 향기 나는 삶을 목상하며 쓴 작품들을 모았고, 3부에서는 1986년부터 독일에 살면서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독일의 문화를 체험하며 쓴 글들이다. 4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동된 재독 동포들에 의한 재독한국문인회의 탄생과 재독한국문학에 대한 글을 실었다. 글에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짙게 묻어난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중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한 탓에 몇 년간 어린 시절을 보낸 진주 외갓집의 외할아버지·외할머니에 대한 추억, 성격이나 취향, 먹는 기호품까지 정반대지만 부부싸움 후 거의 99% 먼저 사과를 하는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 함께 지내는 가정생활을 거의 겪어보지 못한채 10년 전 훌쩍 세상을 떠난 아버지애 대한 애뜻함 등이 단정한 글 속에 묻어난다.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 반갑다. 선우미디어, 1만원.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통한다(김현곤 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쳐 바야흐로 서비스 사회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활동을 서비스로 정의한다. 모든 활동에는 고객이 있기 마련이고 고객이 있는 한 그것은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미래 사회의 제1경쟁력인 서비스 창조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입문서. 책에서 다루는 서비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종이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말보다 훨씬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서비스 창조의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미래에도 변치 않을 불변의 7대 서비스 테마를 제시하였다.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 3대 이유는 편리성, 감성 만족, 재미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3대 환경 요인은 시간, 관계, 개방(열림)이다. 또한 지속 가능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본 충실이 불가결의 조건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서비스 창조 방향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창조력을 실천할 때 미래의 서비스 블루오션을 훨씬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 이어서 서비스 창조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불변의 7대 서비스 테마별로 구체적인 서비스 창조력의 선진 사례들을





재단지원 신간안내



소개한다. 대부분 국내외의 앞선 사례들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들도 적극 소개했다. 미래에 펼쳐질 서비스 블루오션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다뤘다. 삼우반, 1만3000원.

문화로 되살아난 남도 5일장(김옥경 글)

현대화에 밀려 사라졌던 광주·전남지역 남도 5일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대형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도심 속에서 사라졌던 시골 5일장이 테마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돼 나타나고 있다. 남도 5일장은 옛 장터의 명맥을 유지하며 구수한 시골 정취와 애환이 깃든 장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삶의 공간이다. 문헌상 조선시대부터 200여 년이 넘도록 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높다. 조선왕조와 일제시대, 해방, 전쟁과 휴전 등 굵직한 시대의 변화상을 함께 겪으며 지탱해 온 5일장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삶의 현장이었다. 물론 이 가운데 인적이 끊겨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하지만 몇 백년 옛 장터의 맥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더 많다. 이 책은 문화로 되살아나고 있는 남도 5일장을 3부로 나눠 살펴본다. 제1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설화와 역사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장터의 문화를 담았다. 또 제2부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연계해 해당 장터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장터를,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통의 맥락을 잇고 있는 장터를 모았다. 특히 남도 5일장이 지역 전문문화와 특산물 등과 맞물려 다양한 주제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 시장이 단순히 물물만 교류되는 장소가 아니라 설화와 연희, 씨름 등 각종 놀이문화가 가미된 민속문화 현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드러냈다. 민속원, 1만4000원.



바다만 아는 6.25전쟁 비화 증언(문창재 글)

올해로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다. 전쟁 3년 동안 한국의 바다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스쳐 지나치는 서해의 여러 섬마다 그 아픈 역사의 흔적이 숨어있다. 우리 삶의 터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어서 그것들은 우리의 관심권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우연한 기회에 군 원로들의 회고록을 집필하게 된 저자는 개개인의 회고록에만 잠들어있는 귀중한 이야기들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잇고 기워써 다른 한 발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밤 부산 앞바다에서 전함 백두산호가 100발뿐인 포탄으로 벌인 대한해협해전, 상륙정이 없어 거룻배와 부녀자까지 동원해 포탄을 나른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을 숨기기 위해 학도병들을 태풍 치는 바다에 뛰어내리게 한 장사동상륙작전 등 해상 전투의 비화들은 너무나 놀라웠다. 필자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기록발굴, 현장답사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특히 9장 '겨울바다 엑서더스'는 급박했던 흥남철수(1950년 12월)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1만 6000원. 일진사, 1만6000원.



‘서해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어록으로 본 노무현의 중북좌파 진보주의와 그 적들
(서옥식 엮음)

우리나라에서 말로써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꼽자면 단연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싸움닭 기질의 DNA를 지닌 정치적 승부사’, ‘언어의 조련사’, ‘연설의 달인’ 으로 불리어 왔다. 그래서 ‘말통령’ 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그는 특유의 공격성 직설화법으로 유명하다. 그런 탓에 탈도 많았다. 자신의 말 때문에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64일간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국회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선거법위반 발언 등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네번이나 ‘옐로 카드’ 도 받았다. 이 가운데 두번은 탄핵 이후에 받은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는 노 대통령이 연설이나 강연을 할 때는 사그칠 확률이 높다고 조마조마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그의 주장은 △보수는 강자의 사상, 진보는 약자의 사상 △보수는 약육강식,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 △보수는 강자끼리 움켜쥐는 것, 진보는 약자끼리 나누는 것 △진보는 버스 ‘같이 타고가자’, 보수는 ‘늦는다 비좁다 태우지 마라’ △힘센 놈만 밀어주는 것이 보수주의, 약자를 챙기는 것은 진보주의라고 하는 식이다. 저자는 참여정부시절 청와대가 발간한 노 전대통령의 연설문집, 유고집, 언론보도 기사 등에 실린 발언 중 기록으로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취사 선택해 정리, 보통인의 상식 범위에서 노 전대통령의 왜곡된 보수-진보관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도리, 1만8000원.

숨겨진 미국(이현주 글 · 사진)

KBS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저자는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사건 때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미국’ 을 보게 됐다고 말한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됐고, 언론 창구도 통일됐다. 무엇보다 한인 사회에 도는 괴소문과는 달리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 이민자 조총회’ 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총기에 모아졌고, 총기소지 허용에 관한 규제 문제점과 교내 안전대책 강화 등을 차분히 조명했다.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또 다른 미국의 모습을 발견한다. 총기 문제를 대대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언론 보도에도 여론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총기 규제에는 반대하는 것이었다. 책은 저자가 현지에서 3년 동안 취재하면서 발견한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 속’ 이야기다. 오클라호마주 북동부 도시 털사(Tulsa)에서 매년 4·11월 두 차례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건 소(gun show), 33조원어치의 퇴역기(機)들이 모여 미 공군의 부품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비행기 무덤’ 등을 현장 취재했다. 또 오바마 정권의 인수인계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실제적인 인수과정을 그려내고, 부시와 클린턴은 물론 카터와 레이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대 미 정권인수의 모범·실패사례를 정리했다. 가씨,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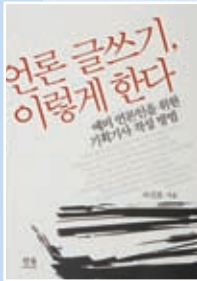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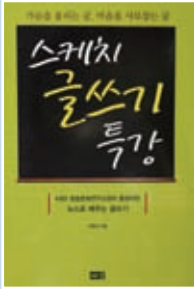
스케치 글쓰기 특강(이준삼 글)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에 나선 어린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재단지원 신간안내



어린이날 흔히 반복되는 스케치 기사의 일부분이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썼고, ‘마냥 즐겁다’ 는 케케묵은 표현은 글 속에 아무런 감흥이 배어 있지 않다. 이것은 스케치 글이 아니다. 글 속에 의미를 불어넣어야 올바른 스케치가 된다. 저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스케치’ 를 그저 보이는 대로 써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보이는 대로 쓰지 말 것’,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말 것’, ‘어색한 수식을 하지 말 것’ 을 스케치 문장의 3대 금기사항으로 꼽는다. 책은 되풀이되고 있는 상투적인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쓸데없이 긴 문장 등 나쁜 기사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어떠한 글쓰기가 ‘좋은 글 쓰기’ 인지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사를 잘 쓰기 위한 세 가지 요건과 의미 부여, 정확한 수식, 토막 문장 추방 등 스케치 글을 쓰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점을 제시한다. 더 볼어 쉽게 접하고 있는 소재들을 식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묘사하는 방법, 교양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스케치가 왜 승부처인가를 실례를 들어 보여준다. 해냄, 1만3000원.

언론 글쓰기, 이렇게 한다(이진호 글)

예비언론인들을 위한 기획기사 작성 방법 소개서, 한국적 기획기사의 개념, 기획기사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는 서구적 저널리즘 전통의 취재 및 보도방식,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예비 언론인들의 실전기사 첨삭 내용, 그리고 언론 글쓰기를 위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획기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후 저널리즘 일반에서 소개되는 뉴스의 성격, 취재와 보도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기획기사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들을 정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선 일반론적 차원에서 무엇이 뉴스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정보가 모이며, 취합된 정보를 어떻게 정비해야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획기사와 유사한 서구식 탐사보도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어 탐사보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를 연계해 기획기사에 대한 독자들과의 이해를 노린다. 또 한국에서 기획기사로 번역된 영미권의 피쳐(feature)에 대한 내용도 둘러본다. 이후 앞서 소개한 이 책의 핵심 내용, 즉 기획기사 실전 첨삭 내용이 전달된다. 끝으로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실수를 종합해, 효과적인 기획기사 작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울아카데미, 1만6000원.

정부PR(유재웅 글)

19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정부 PR은 ‘구름잡는 일’ 이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실체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 PR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정책의 절반이 PR’ 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책이 곧 PR’ 이라는 말이 등장할만큼 정부 PR에 대한 인식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PR을 잘해서 정책이 성공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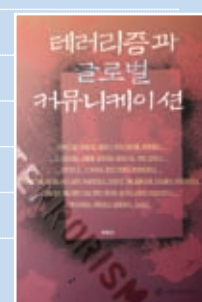
사례보다는 그 반대 사례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 왜 그런 걸까? 28년 동안 오로지 국내외 PR 현장에서 일해온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정부 PR의 이론과 실제 파트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정부PR의 실제 분야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리서치에서부터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 개념과 내용, 알아두면 효과적으로 PR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처럼 제시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PR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 PR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다수 분석해 정리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정부 PR 중 특히 중요한 정책 PR, 이슈 관리 PR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살아있는 학습이 되도록 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만3000원.

철학자들의 언론강의(존 머릴 글, 김동률 번역)

동기의 순수성과 절차의 정당성은 언론현장에서 늘 상존하는 가장 큰 갈등의 요소이다. 칸트에 따르면 언론행위에서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취재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취재의 경우, 아무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이와 같은 칸트의 윤리관을 옹통성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긍하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명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야할 경우가 언론계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명쾌한 답은 쉽지 않다. 책은 노자,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20세기 말의 존 롤스와 아이리스 머독에 이르기까지 38명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윤리적 생각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인들의 철학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이어서가 아니고, 오늘날 언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메시지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자의 목표다. 그러나 존 머릴 미주리대학 석좌교수의 legacy of Wisdom: The Great Thinker and Journalism을 기본으로 하되, 원서가 지나치게 서구철학자, 서구 시각에 치우쳐 있어 우리의 사례를 대폭 덧붙였다. 나남, 1만5000원.

테러리즘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박완규 글)

테러와 테러리즘이 일상화된 세상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2001년 9·11테러 희생자 명단에는 한인 18명이 들어있었고, 2004년 5월에는 이라크에서 일하던 김선일 씨가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2007년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었고, 이중 2명이 살해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이고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미국에서조차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모호하게 사용된다. 테러나 테러리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책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그 용어의 실제



new books



재단지원 신간안내

적 의미 등을 다루면서 테러리즘을 통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를 점검해본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을 키워드로 삼아 테러리즘의 배경과 오늘날의 테러리즘 현황을 짚어본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세계를 이어주는 이 시대에는 테러리즘의 형태와 의미가 과거와 다르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종교 특히 이슬람교와 테러리즘 간 관계, 테러와의 전쟁의 현주소 등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따져본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만8000원.

Strategies in Public Relations (원우현 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저자가 한국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를 바탕으로 남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요 PR전략에 대해 영어로 정리했다. 특히 학술적 의미를 찾는 독자와 실제적 사례에서 의미를 찾는 독자 모두에게 PR 과정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27개의 사례를 통해 고용관계, 회사의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위기관리·소통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내포하던 전통적인 PR 개념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더해 최근 한국의 PR 사례의 실질적인 분석을 포함했다. 저자는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PR 전략에 대한 적합한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 사례의 특수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보다 실제적인 PR 사례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와 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길로 안내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3만5000원.

힘있는 뉴스 리포트 (이창재 글)

완전한 뉴스 리포트란 무엇일까? 육하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육하원칙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요소일 뿐이다.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뉴스 리포트에 힘을 싣고 시청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방송기자인 저자는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를 설득할 것인지 설명한다. 기사의 논리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 신뢰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설득력 있는 리포트를 제작하도록 돕는다. 필요한 취재 자료를 어떻게 선별해 쉽고 짧고 구체적이며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과 오디오를 편집해 리포트를 제작할 것인지도 짚어본다. 이를 위해서 'SBS 8시 뉴스'에 방송된 리포트 가운데 제작이 잘된 베스트 40여개의 리포트(SBS에서는 메인 뉴스를 방송한 뒤 매일 그날의 베스트 리포트를 뽑는다)의 구성과 특성을 분석해 장점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리포트 제작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만5000원.

new books

